

News

[6·17부동산대책]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갭투자 원천 차단

데일리안

정부,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 제외한 전역과 대전·청주 등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서울 송파·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서울 3억원 초과 주택 구입하면 전세대출 회수

초저금리에도 은행서 잠자는 돈... '돈맥경화' 공포 심화

데일리안

0%대 초저금리시대가 본격화됐지만 가계나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은행에 돈을 예치만하고 좀처럼 꺼내 쓰지 않아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
4대 은행 5월 말 요구불예금 잔액 432.7조원...요구불예금 회전을 지난 1년간 20.2회에서 17.2회로 '뚝'... "저금리·코로나19에다 사모펀드 사태로 안전자산 선호

악재 비껴간 국민은행, 사모펀드 판매 나홀로 증가

뉴스1

국민은행의 올해 4월 말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7조3,683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1,642억원) 대비 42.7% 늘어...
같은 기간 사모펀드 판매잔액이 늘어난 은행은 국민은행이 유일... 반면, 우리은행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올해 4월 3조5,49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1.7% 가량 추

'40조' 기안기금 운용 방향 오늘 분수령... 자동차부품 포함되나

데일리안

18일 오후 중기금융위원회 개최 예정... 지원 일정 및 대상 결정... 산은 '쌍용차·LCC' 포함 난색... 신청 공고 후 이르면 내달 지원할 듯
채권 발행은 3년물을 중심으로 최대 5년물까지 발행될 예정으로 이날 회의를 통해 자금 지원 신청 공고 일정을 확정짓고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

당국 '보험사, 남탓 말고 자본 늘려라'... 新 회계기준 예정대로

조선비즈

보험업계에서는 IFRS17을 예정대로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주장... 아예 IFRS17 도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금융당국 관계자, "IFRS17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번 회의도 IFRS17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이었다"고 강조

'빅3' 생보사, 해외 사업 확대... 격전지 된 '동남아'

한국금융

교보생명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미얀마에 주재사무소 설립을 추진... 미얀마 사무소 설립을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 중
교보생명의 미얀마 진출이 성사되면 빅3 생보사(삼성·한화·교보) 모두 동남아 보험시장에 진출

미래에셋대우, 자사주 소각 완료 "주주가치 제고"

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대우가 소각한 자사주는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4일까지 약 680억원을 투입해 매입한 자사주 1,300만주... 보통주 유통주식 수의 약 2.4%
미래에셋대우는 약 1,100억원 규모의 보통주 1,600만주를 추가 매입 중... 9월 7일까지 3개월 이내에 장내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완료할 예정

카뱅에서 'KB증권' 주식계좌 만든다

한국경제

카카오뱅크가 주식계좌개설 서비스 대상에 'KB증권'을 추가... 카카오뱅크 입출금 계좌개설시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편리하게 주식 계좌를 열 수 있는 서비스
카카오뱅크는 앞서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과 제휴해 5월 말까지 200만개의 신규 계좌를 확보... 주식계좌 최초 개설 고객에게 5000원의 축하금을 지급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